

간호사 배치수준 높으면 ... 재입원을 감소 등 비용절감

한국, 숙련된 간호사 떠나지 않게 하는 보유전략 시급 간호사 대 환자 비율 공표 ...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간호정책 발전 위한 특별간담회 윤종필 국회의원 주최 - 대한간호협회 주관



환자안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간호사 배치수준(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간호사 배치수준이 환자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린다 에이큰(Linda H. Aiken) 펜실베이니아대 간호대학 교수와 제임스 뷰켄(James Buchanan) 퀸 마가렛대 교수가 초청됐다.

정책토론회에 앞서 두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간호정책 발전을 위한 특별간담회'가 윤종필 국회의원 주최,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6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 TF 홍승령 팀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윤종필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사 배치수준이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세계적인 전문가가 한국을 찾아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면서 "두 분 교수님의 연구가 연구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책과 법으로 연결되고 영향을 미쳤는지 경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 간호정책 TF에서도 참석한 만큼 정부와 국회, 대한간호협회가 함께 해답을 찾아나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2월 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 TF가 신설되는 역사적인 일이 있었으며, 오늘은 간호사 배치수준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됐다"면서 "이번 특별간담회가 입법부와 행정부, 간호협회가 협력하면서 환자안전에 강화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린다 에이큰 교수는 "펜실베이니아대 '건조결과와 정책연구센터'에서 간호사 배치수준이 환자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세계 30개국에서 동일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도 포함돼 있다"면서 "연구에 따르면 어느 나라에서든 간호사 배치수준이 높을 때 환자결과가 좋아진다는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간호사 배치수준과 환자안전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근거"라고 말했다.

거"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간호사 배치수준은 국제 수준에 비해 열악한데 이는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계속 일하지 않고 떠나는 이유가 된다"면서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간호사들을 충분히 보유(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원 간호사 중 신입간호사 비율 10% 미만일 때 안전한 조합

린다 에이큰 교수는 "경력간호사가 부족해져 신입간호사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경력이 짧은 간호사가 프리젠티를 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면서 "한 병원의 전체 간호사 중 신입간호사 비율이 10% 미만일 때 안전한 조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들이 자신의 경력을 개발해 나가면서 20~30년간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뷰켄 교수는 "간호사들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경력과 기여도를 인정해주는 적절한 급여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교수는 간호사 배치수준이 환자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린다 에이큰 교수는 "연구결과와 간호사 배치수준을 높일 때 환자의 사망률과 재입원을 등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간호사가 충분히 배치되지 않으면 결국 비용부담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제임스 뷰켄 교수는 "각 병원의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웹사이트나 인턴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면서 "공표함으로써 병원들이 항상 간호사 배치수준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고 자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홍보전략을 만들 때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자간호 즉 환자안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연구결과에 근거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민과 국회, 언론 등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멘토들이 신입간호사 적응 돕는 교육 초기 투자가 결국에는 더 큰 이익

두 교수는 신입간호사들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린다 에이큰 교수는 "미국의 경우 신입간호사가 1년 동안 멘토로부터 지도를 받으며 실무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며, 병원에서 비용을 부담한다"고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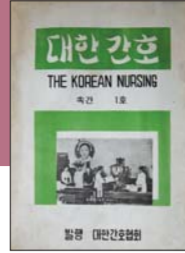
제임스 뷰켄 교수는 "스웨덴의 경우 정부 지원사업으로 신입간호사 첫 해에 멘토링을 해주며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있고, 신입간호사에게는 업무도 줄여주고 있다"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신입간호사에게 초기에 투자하는 것이 결국 더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가 이직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따른다"면서 "수개월치의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을 손해 보게 되고, 경력이 많은 간호사를 잃을 경우에는 2~3년치 급여만큼의 손실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두 교수는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선 양질의 간호사를 적정인력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린다 에이큰 교수는 "간호인력 중 간호사의 비율이 중요하다는 근거를 유럽 12개국 대상 연구결과에서 제시했다"면서 "간호사를 증원하는 대신 보조인력을 더 투입한 경우 간호사의 만족도도 좋아지지 않았고, 환자결과도 나빠졌다"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간호역사뿌리찾기]
'대한간호(속간1호)' 다시보기 ⑤-1

대한간호협회가 1953년 6월 26일 발간한 잡지 '대한간호(속간1호)'에 실린 글을 발췌해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원문(국·한문 혼용)을 서지학자가 한글화한 버전으로 게재하며, 간호사 명칭은 당시 불렀던 그대로 간호원으로 실었습니다.

*아래의 글은 당시 한신광 조산원회 임원(초대 보건간호원)이 '30여년 전 간호원의 생활을 회고함'이란 제목으로 쓴 글을 요약한 것이며, 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흰 유니폼에 흰 갓 쓴 간호사 신성해보여 간호학교 첫 3개월 너무 힘들어 도망칠 궁리

지금으로부터 34년 전 내 나이 18세 되던 6월에 서울 동대문부인병원 간호원양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입학하게 된 통기는 고향인 진주 배문병원의 간호원으로 와 있는 세브란스 출신 최명애 씨와 정답게 지내던 때, 내가 병원에 놀러 가면 간호원들이 흰 유니폼에 흰 갓을 쓰고 병실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어찌나 깨끗하고 신성하여 보이는지 꼭 전사 같이 보였다.

간호원의 손은 언제나 깨끗하고, 그 깨끗한 손으로 환자의 여원 손을 잡고 맥을 보고 위로하여 주는 모습이 몹시도 신성하고 거룩하여 보였다. 나는 그때 진주 광명여학교 교원생활을 하고 있을 시절인데,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나고 밖으로 좀 나가 보고 싶은 생각도 있을 때라, 그만 학교생활을 접어던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동대문부인병원을 찾아간 것이다.

어찌하여 세브란스로 아니 가고, 동대문부인병원을 찾아갔는가 하면, 여자 환자만을 취급하는 곳이라는 것이 내게 취미를 더 끌게 되었던 것이다. 입학할 때 의사는 서양인 닥터 슈튜어트, 한국인 의사 안수경, 간호원장 미스 우라보스가 있었다.

수간호원은 흰 복장에 흰 갓을 쓰고 갓 위에 새까만 무단 테를 둘러서 쓰고 있는 것이 꼭 좋아 보였다. 학생은 전부 시퍼런 복장에 흰 앞치마를 입고 흰 갓을 쓰고 있었다. 그때 우리 동급생이 6명이었다.

처음 입학하면 학습반이라고 하여서 3개월간을 한국 옷에다가 앞치마만 입혀 가지고 매일 소제하는 일, 밥상 갖다 주는 일, 뒷간호원들의 심부름하는 일, 산모 피 가지기 빨래하는 일, 어린이이 똥 가지기 빨래하는 일 어려운 일만 시킨다. 간호원 공부하러 입학한 사람으로 하여금 낙망과 실망을 주는 때였다. 학습반 3개월간은 대단한 시험기간이고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그 석 달을 참가가 대단히 어려웠다.

그 때는 간호원 학교에는 한 번 입학하면 자유로이 나갈 수 없는 아주 엄한 철적이 있었다. 동급생 친구와 모여 앉으면 도망칠 궁리만 하다가 그만 수간호원이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도망도 못하고 발만 받게 되었다(그때 발을 받게 되면 갓을 뺏긴다). 억지로 석 달을 참고 나니, 간호원복 입고 갓 쓰는 재깁이 있었다. 간호원 복장을 입고 갓을 쓰고 병실에 들어가서 환자의 열도 보고 약도 주고 하니, 이제부터는 간호원 같은 감이 생기고 조금 위안이 되고 취미가 생기게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www.RNjob.or.kr ☎ 1522-1755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신 경 림 인쇄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다0636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 호 사 신 문 (02)2260-2571 FAX (02)2260-2579 특주소변경 (02)2260-2571 nursenews.co.kr

린다 에이큰 교수팀 연구결과

0...린다 에이큰 교수팀의 연구논문 '유럽 9개국에서의 간호사 대 환자 비율, 간호사 교육수준, 병원 사망률 : 후향적 관찰연구'가 저널 란셋(The Lancet)에 실렸다.

연구결과 병원에서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가 1명 더 늘어날 때 수술환자의 사망 위험이 7% 증가했다. 학사학위 간호사의 비율이 10% 늘어나면 수술환자의 사망 위험이 7%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호사의 60%가 학사학위 소지자이며, 간호사 1명 당 평균 6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는 병원의 경우 간호사의 30%가 학사학위가 있고, 평균 8명의 환자를 돌보는 병원에 비해 수술환자 사망률이 약 30% 낮았다.

연구에서는 유럽 9개국 300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50세 이상 환자 42만2730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환자를 직접 간호한 간호사 2만6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9개

국은 벨기에, 잉글랜드,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이다. 분석대상 수술환자 중 입원 30일 이내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은 9개국 평균 1.3%(5381명)로 나타났다.

0...미국의 간호사 배치수준과 환자 재입원 연구에서는 담당환자 1명이 증가할 때 퇴원 30일 후 재입원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수술환자는 3%, 고관절·무릎관절 치환술 환자는 8%, 심부전·폐렴·급성심근경색 환자는 9%, 어린이 환자는 11%가 높아졌다.

0...호주 퀸즐랜드주에서는 간호사 배치 기준을 강화한 2년 후 환자사망률이 12% 감소했다. 환자안전 등급 탈락률이 35% 줄었고, 감염예방 등급 탈락률이 12% 줄었다. 간호사 직무불만족은 8%, 간호사 소진은 7% 감소했다.

0...칠레에서는 간호사 대 환자 수를 1:14에서 1:8로 줄일 경우 사망 예방환자 수가 393명에서 2762명으로, 연간 재입원 예방은 180건에서 4184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재입원률 감소로 연간 2164만달러(256억6900만원)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의료공간에선 제 부모, 제 자식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환자를 내 가족 이상으로 정성을 다해 돌보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저에게 환자를 존중하고 환자께 존중받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간호, 헌신이 온실 한미의 미용입니다.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흔적을 다루는 응급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저는 응급의 위험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먼저 달려옵니다. 간호, 헌신이 온실 한미의 미용입니다.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돕는 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저는 전문적인 간호로 환자들께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간호, 헌신이 온실 한미의 미용입니다.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환자가 회복되는 걸 보는 것 만큼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저에게 간호는 직업 그 이상으로 제 삶의 보람입니다. 간호, 헌신이 온실 한미의 미용입니다.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